

자꾸 남편 탓, 아내 탓만 하지 마세요. 그런 남편, 그런 아내, 그런 자식, 그런 부모, 그런 환경, 그런 직장에서 '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?'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.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거울을 닦하거나 여름을 닦할 게 아니라, 거울에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, 여름에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.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불평하지 말고, 그 음식은 그대로 두고 '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?'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.

돈을 빌려주었더니 안 갚는 사람이 있다면, '그놈은 나쁘다' 이러지 말고, 상대가 안 갚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.

'포기하는 게 좋겠는가?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겠는가?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을 것인가? 돈도 사람도 다 잃을 것인가?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?'

이렇게 관점을 갖는 것이 주인된 자세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주인 노릇을 못하고, 늘 경계에 시달리며 남의 속박을 받죠.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해야됩니다.

내 기분을 알아차리고,
내 욕망을 알아차리고,
내 성냄을 알아차려서
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됩니다.